



K리그 챌린지(2부리그) 부산 아이파크 최승인(오른쪽에서 2번째)이 8월9일 전남 광양전용경기장에서 열린 2017 KEB하나은행 FA컵 8강전 클래식(1부리그) 전남 드래곤즈와의 원정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축하를 받고 있다. 부산은 전남을 3-1로 꺾고, 대회 4강에 합류했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포항·서울 이어 전남까지…‘클래식 킬러’ 부산

(1부리그)

전남 3-1 완파…FA컵 준결승 진출

전남, 전반 35초 자책골로 출발부터 꼬여 부산, 세트피스 훈련 등 철저한 준비 적중 목표시청, 성남 3-0 꺾고 4강 합류 이변

K리그 챌린지(2부리그) 부산 아이파크가 2017 KEB하나은행 FA컵에서 ‘클래식(1부리그) 킬러’로 거듭나고 있다. 3부리그 격인 내셔널리그의 목표시청은 챌린지 성남FC를 꺾는 파란을 연출했다.

부산은 8월9일 광양전용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전남 드래곤즈와의 대회 8강전에서 3-1 패승을 거두며 4강에 안착했다. 앞선 32장에서 포항 스틸러스를 1-0으로 꺾은데 이어 16장에서 FC서울을 승부차기로 제압한 부산은 그야말로 꽃길을 걸었다.

모든 부분이 맞아 떨어졌다. 전반 35초만에 전남 수비수 양준아의 자책골로 앞선 부산은 스코어 1-1로 팽팽한 전반 41분 외국인 공격수 레오가 득점하며 다시 앞섰다.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전남이 치열하게 반격하던 후반 30분에 나왔다. 임상협의 날카로운 프리킥을 최승인이 헤딩골로 연결하며 승리를

예감할 수 있었다.

부산 벤치의 철저한 준비가 적중했다. 단판 승부를 앞두고 부산은 세밀한 세트피스 전략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전술훈련이 끝난 뒤 다양한 각도에서의 프리킥과 코너킥을 집중적으로 다듬었다. 축구에서 가장 편하게 득점 찬스를 엿을 수 있는 순간은 공이 멈춰진 세트피스 상황이다. 부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승부차기에 대비해 페널티킥 훈련까지 하고 경기에 나섰다.

부산 조진호 감독은 “우리 챌린지에 있을 팀이 아니라는 생각을 선수단이 항상 갖고 있다. 이전에 클래식을 경험한 일부 선수들의 단단한 정신무장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라며 환하게 웃

었다.

목포시청은 성남 원정으로 치러진 8강전서 3-0의 완승을 거뒀다. 목표시청은 전반 2분 정훈성의 선제골로 앞섰고, 전반 24분 이인규, 전 42분 김영욱의 추가골이 연이어 터져 3-0으로 달아났다. 후반 5분 이창훈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놓인 성남은 만회를 위해 안간힘을 다했지만 목표시청의 골문을 열지 못했다.

울산은 수보티치, 오르샤, 김인성의 득점포 가동으로 상주 상무에 3-1로 이겨 4강에 합류했다. 한편 10월25일로 예정된 대회 4강전의 대진은 9월초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광양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내년엔 FA컵 준결승도 ‘홈&어웨이’로?

지난해 결승 슈퍼매치 흥행 고무 확대 추진 리그 막판 순위 경쟁·대표팀 차출 등 부담 올리는 보류…내년에도 K리그와 지속 협의

한국축구 프로·아마추어 최강자를 가리는 FA컵에 흥미를 더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홈&어웨이의 확대 시행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연말 2017년도 사업계획안 중 하나로 2017 KEB하나은행 FA컵 4강전에 홈&어웨이를 추가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동안 토너먼트 단판승부로 진행돼 온 FA컵은 지난해 대회 결승전부터 홈&어웨이로

2경기를 시행해 활력을 불어넣었다.

지난해에는 큰 효과를 봤다. K리그 최고의 흥행가드로 꼽히는 수원 삼성-FC서울의 ‘슈퍼매치’가 결승 매치업으로 정해지면서 엄청난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경기 내용도 흥미진진했다. 2차전 연장전까지 끝내 승부를 가리지 못한 두 팀은 골키퍼까지 참여한 드라마틱한 승부차기 접전을 펼쳤고, K리그 클래식(1부 리그) 내내 고전한 수원이 정상을 밟아 짜릿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에 고무된 축구협회가 홈&어웨이 방식을 4강전부터 결승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다. 그런데 일정을 추가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축구협회는 올해 FA컵 규정을 통해 대회 4강을 10월25일 치르는 것으로 공

지하면서 예비일로 10월11일을 추가하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K리그를 주관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협의했지만 걸림돌이 많았다.

K리그 클래식은 연간 정규리그 33경기를 치른 뒤 스플릿 라운드(팀당 5경기)를 소화한다. 챌린지(2부리그) 역시 기나긴 레이스를 펼친다. 또한 챌린지 2~4위 팀이 참가할 플레이오프(PO)도 치러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챌린지 최종 2위와 클래식 11위 팀이 겨룰 승강PO까지 감안해야 했다. 각 구단들이 치열한 생존게임을 벌이는 연말에 한 경기를 확대하면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축구국가대표팀이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에서 졸군 졸전을 거듭해 최악의 경우, B조 3위와 아시아PO(10월)를 거쳐 북중미 4위와 대륙간PO

까지 펼칠 가능성도 염두에 뒤야 했다. 이란(8월 31일·홈)~우즈베키스탄(9월5일·원정)으로 이어질 최종예선 마지막 2연전을 남긴 가운데 한국은 불안한 2위다.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 캘린더에 따르면 아시아PO는 10월2~10일, 대륙간PO는 11월6~14일에 각각 치러진다.

결국 축구협회는 올해는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최근 K리그 대표자 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완전한 취소는 아니다. 프로축구연맹과의 협의를 통해 내년에 다시 FA컵의 홈&어웨이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수원-서울의 슈퍼매치 2연전을 통해 FA컵 흥행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다. 일정 등 다양한 변수들을 철저히 검토해 흥미진진한 겨울잔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광양 | 남정현 기자

폭염·폭우에 훼손 잔디도 쉬고 싶다

K리그 구단들 여름철 잔디 관리 비상

축구에서는 그라운드 상태가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잔디의 길이, 젖어있는 정도에 따라 공이 굴러가는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들은 그라운드 상태에 매우 민감하다.

지난해부터 K리그 클래식(1부리그) 감독, 선수들 사이에서는 잔디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특히 폭염에 기습적인 폭우가 동반되는 한 여름에 잔디 손상이 더 심해진다.

광주월드컵경기장(광주FC 홈구장),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인천 유나이티드 홈구장), 상주시민운동장(상주 상무 홈구장) 등은 최근의 폭염으로 인해 잔디가 말라죽어 선수들의 경기력에 지장을 주고 있다.

전주월드컵경기장(전북 현대 홈구장), 수원월드컵경기장(수원 삼성 홈구장), 제주월드컵경기장(제주 유나이티드 홈구장) 등은 지난 5월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을 앞두고 잔디를 전면 보수해 다른 구장에 비해 나은 편에 속했다.

그런데 제주월드컵경기장은 U-20월드컵 종료 직후 폭우 속에서 제주 유나이티드와 수원 삼성의 FA컵 16강 경기가 치러진 여파로 훼손이 돼 최상의 상태는 아니다.

K리그 클래식 구단 중 포항 스틸러스는 잔디 관리를 가장 잘하는 팀 중 하나다. 포항 관계자는 “기온이 너무 높아도 잔디가 죽어버린다. 여기에 기습적으로 폭우가 내려 물이 고인 부분은 잔디 밑의 흙이 썩어버린다. 한 여름이 잔디 관리가 특히 어려운 시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를 치르고 훼손된 잔디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A매치 휴식기를 포함해 9월17일 전북과의 경기 이전까지 휴경기가 없다. 폭염을 피해 잔디 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놓아 그나마 다행스럽다”라고 덧붙였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포항 유스’ 이진현 유럽 진출 FK 오스트리아 비엔나 임대



이진현

포항 스틸러스는 “팀 유스 출신이자 우선지명대상자 이진현(19·성균관대)이 오스트리아의 명문 FK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진출 한다”고 8월 9일 밝혔다.

포항동초~포항중~포항고를 거쳐 성균관대에 재학 중인 이진현은 지난 5월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코리아 2017’에서 대표팀의 미드필더로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

비엔나는 U-20 월드컵 이전부터 이진현에게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현은 일단 임대신분이다. 내년 6월까지의 한 시즌 동안 임대선수로 비엔나에서 뛰다. 이진현은 10일 오스트리아로 출국해 메디컬 테스트를 받는다.

정지욱 기자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한국축구가 퍼거슨을 이기는 법



취재파일

최현필 전문기자
choihg22@donga.com

고등학교생인 우리 집 딸아이의 일상은 SNS로 시작해 SNS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ocial Network Services의 약자인 SNS는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인데,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끼니와도 같은 그런 존재인 듯하다. 그 종류도 다양하다. 딸아이가 사용하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몰라도 휴대전화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한다. 키득거리다가도 갑자기 심각해지는 표정을 보고 있으면 그 속에 뭔가 특별한 게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뭔가 싶어 결혼질이라도 하려 하면 질색을 한다. 심하다싶어 몇 번 나무랐지만 꿈쩍도 않는다. 중독이라고 생각을 하면

서도 포레들 사이의 문화를 방해하는 것 같아 강제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그 폐해를 뻔히 아는 마당에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딸아이에게 한 가지 다짐을 받았다. ‘글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는 말자.’

SNS는 제대로만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하다. 대중의 관심을 순식간에, 그리고 광범위하게 끌 수 있는 수단으로 SNS 만한 게 없다. 그래서 정치계나 연예계에서는 알미울 정도로 잘 이용한다. 스포츠계도 마찬가지다. 각종 정보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고, 특히 선수 입장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팬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높은 수단이다.

하지만 파급력이 큰 만큼 위험도 크다. 원래 글이라는 게 자신의 의도와 달리 해석돼 오해를 살 수 있고, 불안정한 감정 상태나 취중의 SNS 활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는다.

스포츠계에서 SNS의 폐해를 말할 때 늘 등

장하는 인물이 알렉스 퍼거슨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다. 그는 재임시절 루니가 팬들과 SNS 상에서 논쟁을 벌이자 “SNS는 인생의 낭비”라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스포츠계에서도 SNS 관련 논란이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장난 삼아 혹은 의도치 않게 불거진 경우도 있고, 작심하고 저격하는 경우도 있다. 폭발력이 워낙 크다보니 논란의 당사자들이 입는 마음의 상처는 깊을 수밖에 없다.

최근 K리그 클래식(1부리그) 포항 양동현이 최근 자신의 SNS 계정으로 전북 조성환을 공개적으로 비난해 논란이 됐다. 조성환이 반박하는 사진과 함께 조롱하는 글도 남겼는데, 누가 봐도 의도가 분명하다. 글을 남긴 선수의 입장에서야 속이 시원할지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SNS라는 게 단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팬은 물론이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도 한바다씩 툭툭 던지고 지나가는 게 S

양동현 논란에 “SNS는 인생의 낭비” 퍼거슨 또 1승
건전한 SNS 문화 이끔 ‘한국축구 칭찬 릴레이’ 제안

NS다. 누구의 잘못을 떠나 이전투구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결국 SNS 상의 논란에서 승자는 없게 된다. 확대 재생산되는 논쟁으로 상처 입은 패자들뿐이다. 특히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어떻게 이성적인 플레이가 나올 수 있겠는가.

SNS가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선수들은 명심해야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나 대한축구협회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 때문에 SNS 관련 선수들의 행동지침을 만들었다. 프로연맹의 SNS 사용법에는 ▲사소한 표현일 수 있지만 사회전반에 공론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SNS의 개인 의견은 소속 구단의 입장과 동일시 될 수 있다. ▲SNS는 개인의 자유에 의해 개설되지만 일단 개설된 후에는 하나의 언론매체가 되기에 인종, 종교, 성별, 지역, 이념 등에 근거한 각종 차별적 발

언, 모욕, 욕설, 비방 등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다. 그리고는 ‘여러분은 단순히 선수가 아닌 K리그를 대표하는 얼굴입니다’라고 강조한다. SNS 사용 전에 이런 내용만이라도 숙지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지면을 빌려 SNS를 하고 있는 선수들과 코칭스태프 및 구단 관계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오늘부터 상대팀 선수나 자신의 라이벌에 대해 칭찬하는 내용을 SNS에 올렸으면 한다. 일주일에 한번, 아니 한달에 한번이라도 좋다. 동료의 장점을 팬들에게 소개해보자. 머리 싸매고 찾아야 하는 무거운 주제가 아니라도 좋다. 가벼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칭찬하자. 그 칭찬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선수에게 격려를 해주자. 이런 기분 좋은 코멘트가 포리에 포리를 물면 ‘한국축구 칭찬 릴레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펼쳐질 수 있다고 믿는다. 한마디 칭찬이 가져올 나비효과가 선수들의 SNS 문화까지 바꿔놓을 만큼 엄청나다는 걸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근 한국축구의 기상은 먹구름이다. 게다가 요즘 날씨가 짜증스럽다. ‘칭찬 릴레이’로 분위기 전환 한번 시켜 보시다.